

◇원발성 기흉에 대한 흉강경수술과 개흉술의 비교

김태식, 최영호, 신재승, 황재준, 손영상, 김광택, 김학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

배경 및 목적 : 원발성 기흉의 수술치료로 개흉술이 흉강경 수술로 많이 대치되었고, 두 치료방법의 결과들이 많이 보고되었다. 하지만, 재발율이나 비용-효과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도 보고자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두 치료방법의 임상비교분석을 통해 적합한 치료방침을 정하고자 한다.

방법 : 1997년부터 1998년까지 17개월간 고려대학교 의료원에서 원발성 기흉으로 개흉술과 흉강경 수술로 치료를 받은 157례를 후향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수술 전 심한 늑막유착이 확인된 경우나 수술 후 재발된 경우에는 개흉술을 시행하였고, 그외에는 각 수술방법의 장 단점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환자 스스로 수술방법을 선택하게 하였다. 모두 60례의 개흉술군 중, 3례는 후측방 개흉술을 통해, 나머지 57례는 액와절개술을 통해 기낭절제술을 받았다. 그리고, 97례의 흉강경 수술은 모두 일측폐호흡마취하에서 10mm의 흉강경 port와 각각 10mm, 5mm의 기구 port를 확보하였으며, stapler는 Endo-GIA를 사용하였다. 전체 157례 중, 6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iodine이나 talc를 이용한 화학적 늑막유착술이나 gauze를 이용한 물리적 늑막유착술을 병행 혹은 단독으로 시행하였다.

결과 : 두 군간에 나이와 성비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병변의 좌우측 편향성도 없었다. 수술시간은 흉강경 수술군[56±28.7분]이 개흉술군[75.8±37.3분]보다 짧았다.[p<0.05] 수술 후 공기누출기간은 개흉술군에서 평균 1.4±2.4일, 흉강경 수술군에서 평균 0.3±1.4일로 개흉술에서 길었다.[p<0.05] 수술 후 흉관거치기간, 수술 후 입원기간 역시 모두 개흉술군에서 길었다.[p<0.05] 흉강경 수술군에서 수술 후 진통제 사용횟수가 적었다.[p<0.05] 두 군에서 재발률은 각각 개흉술군에서 3%와 흉강경 수술군에서 4%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환자당 부담액면에서는 흉강경 수술[163.5±111.9만원]이 개흉술[49.2±15.5만원]보다 많은 비용이 들었다.[p<0.05]

결론 : 원발성 기흉의 수술치료로 흉강경 수술이 개흉술보다 여러 면에서 우수하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비용-효과 측면에서는 개흉술이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아마도 아직 보험적용이 되고 있지 않는 stapler의 사용과 흉강경 이용료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책임저자: 최영호(고려대학교 흉부외과) 발표자: 김태식(고려대학교 흉부외과)